



#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호세아 예언자

- 루가 제 4주일  
 제 7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 주일  
 성 필립보 보제사도  
 제 1조, 조과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디도 3:8~15 / 봉독서 539
  - 복음경 : 루가 8:5~15 / 124, B 6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 성 호세아 예언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복음 말씀에서 두 번 호세아 예언자의 특징적이고 가치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7일을 호세아 예언자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마태오9:13, 호세아6:6)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의 입을 통해 이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종교는 형식적으로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에게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의 예배는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람에게 대한 동정심도 없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느님의 뜻에 따르려는 순종도 없어서 내용도, 내적 힘도 없는 것으로 하나의 공연과 같은 것입니다. 신성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이고 참 예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마태오9:13, 호세아6:6)





## 성인들의 삶과 우리

성인이란 성화(聖化)를 이룬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성 막시모스 고백자는 “죄에서 이탈하여 하느님과 계속 사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과 결합한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 그분들이 가르쳐주는 삶의 길을 따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정교회는 전승에 따라 ‘인간은 성화를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과 덕을 쌓고 선행을 베푸는 생활을 함으로써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삶의 가치관에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진정한 삶의 의미가 왜곡되고 급기야는 인간성의 상실이니 인류의 위기니 하는 염려마저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이렇게 혼돈된 세상적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재케 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창조주의 의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데살로니카 전 4,3)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하느님께 바탕을 두고 그 뜻에 따라 사는 순수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느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도록 정화합니다. 하느님을 갈망하여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여 내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갈고 닦습니다.

우리의 으뜸되고 주된 사랑은 거룩하신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명상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성인들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로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로마 13,11)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삶이 특정한 사람에게는만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삶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인 중에도 많은 이들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로써 각계 각층에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오직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영적 투쟁에서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결합한 사람은 그 삶을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게만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의 삶을 모범 삼는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성인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 파시오스 성인(1924-1994)이 들려주는 실제 이야기(2)

(지난주에 이어서)



몇 년 뒤, 그는 자기 아내가 그리스의 피레아스(그리스 수도 아테네와 가까운 항구도시)에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날마다 아내를 위해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내를 찾으러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내에게 다가 가야 할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극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하

느님... 제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아내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십시오.'

그는 어떤 나쁜 감정이나 억울함, 원망, 이기심, 경멸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아내가 불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구원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느님은 그를 위해 하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를 천상의 빛으로 목욕시키셨습니다! 비록 그는 미국의 매우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겸손과 타락한 아내를 향한 참된 친절함과 용서하는 마음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오는 이토록 어마어마한 영적 선물로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성인의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성모님의 은총을 받으며 아토스 산에 살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살면서 성당에 가 신비의 성사에 참여하여 성체와 성혈을 받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영적인 진척과 향상,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걸 아무래도 친절과 용서로 가득 찬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타나시아



## 주보소식

### 대교구

#### ⇒ 온라인 성서공부에 참석합시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질병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대면 예배가 가능해질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주시고, 매주 금요일 성서 공부에도 꼭 참석하여 영적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매일 밤 10시 기도에도 참여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코로나19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간청합시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9월 26일 토요일에 디오니시오스 권새벽 교우와 카테리나 박현진 교우의 결혼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디오니시오스 권새벽 교우는 고 바울로 권언건 신부와 하리스 황신실 사모의 장남이고, 카테리나 박현진 교우는 안드레아 박인식 교우와 니끼 강원희 교우의 차녀로, 부모님들과 함께 정교인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가정, 한 몸을 이룬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여 행복한 정교인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 부속 건물 기와 보수공사

서울의 부속 건물들이 노후로 기와가 많이 상해서 비가 올 때마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자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에 기와 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파손되고 상한 기와들을 새 기와로 교체하였고, 지붕의 배수로 등을 청소하였습니다. 아직 지하선교회관 등 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